

양자내성 전환, AI, 금융, 데이터에 관한 대한민국의 의무.

대한민국은 2035년까지 양자내성 암호로의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며, AI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했고, 전자금융, 가상자산, 개인정보에 관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각 의무를 Qstamp 제품군의 메커니즘에 대응시킵니다.

양자내성 전환

국가 계획과 검증.

법규	요건	QSTAMP 제품군의 대응 방식	날짜
국가 양자내성 암호 전환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공공 및 핵심 시스템의 전환	전반에 걸쳐 NIST가 표준화한 양자내성 알고리즘을 사용	2035년까지 완료
KpqC 프로그램	한국형 양자내성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	국가 알고리즘을 위해 준비된 암호 프로파일	2025년 1월 알고리즘 선정
KCMVP	국가 시스템용 암호모듈 검증	국가 검증을 위해 준비된 프로파일, 아직 검증되지 않음	현행

AI, 전자금융, 가상자산.

법규	요건	QSTAMP 제품군의 대응 방식	날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AI 기본법)	AI 생성 콘텐츠의 라벨링 및 딥페이크에 관한 강화된 규율	생성 시점에 앵커링되는 QTrace 출처 정보	2026년 1월 22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거래 기록과 로그의 무결성 증거	시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사업자의 기록 보존	서명되고 앵커링된 보관 및 이전 기록	2024년 7월 19일부터

개인정보와 전자문서.

법규	요건	QSTAMP 제품군의 대응 방식	날짜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과 보호 조치	조직 외부로 나가는 것은 솔트가 적용된 커밋먼트뿐임	시행 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앵커링된 시각을 수반하는 서명된 전자 기록	시행 중

대한민국을 위한 5단계.

- 1 2035년까지 완료되는 양자내성 암호로의 국가 전환을 계획합니다.
-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의 KpqC 프로그램을 따릅니다.
- 3 국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경우 KCMVP 검증을 위한 암호모듈을 준비합니다.
- 4 QTrace 출처 정보로 AI 기본법에 따라 AI 생성 콘텐츠를 표시합니다.
- 5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직 내부에 보관합니다.

질문

기관이 묻는 질문.

한국의 양자내성 계획은 무엇입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은 2035년까지 공공 및 핵심 시스템을 양자내성 암호로 전환하는 국가 계획을 주도하며, KpqC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Qstamp는 AI 기본법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QTrace는 AI 생성 콘텐츠에 출처 정보를 결합하고 콘텐츠가 생성될 때 앵커링하므로, 표시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Qstamp는 KCMVP 검증을 받았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KCMVP 검증은 별도의 국가 절차입니다. Qstamp는 NIST 표준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그 암호 프로파일은 국가 검증을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범위

이 페이지를 읽는 방법.

날짜 및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공표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Qstamp는 이러한 의무를 뒷받침하는 무결성, 작성자 및 시각에 관한 기술적 증거를 제공합니다.

Qstamp 자체가 어떠한 조직을 준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아니며, 각 조직은 자신의 의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집니다.